

방송대 간호학생의 교육요구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이선옥 · 김영임 · 이상미*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방송대학교의 간호학 교육과정은 간호전문대학 졸업자들에게 학사과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학년 편입학과정으로 개설되었다. 이는 3년과 4년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간호사의 기본교육연한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 간호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제도로 볼 수 있다.

방송대학의 간호학과정은 1992년에 편입학정원 1000명으로 개설되었으며, 1994년에 첫 졸업생으로 282명을 배출한 이후 총 770여명의 간호학사를 배출한 바 있다. 간호계에는 매년 4년제 일반대학의 간호학과와 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가 1 : 6의 비율로 배출되고 있다.

본대학 편입학생의 95% 이상이 보건의료 및 간호계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학사를 가지고 간호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므로 학문과 실무의 연결이 이루어진 학사교육을 받아 질적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간호계에 합입되는 양상을 띄게 된다.

향후 연간 배출되는 일반대학 간호학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방송대 간호학생의 발전은 방송대의 발전인 동시에 간호계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방송대 간호학전공이 1996년이면

세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본 대학의 간호학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간호학 전공 학생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방송대학사로서의 긍지, 졸업후의 진로는 어떠한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졸업 간호사가 간호계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도별 재학생의 입학 및 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입학관련사항, 원격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습방법, 졸업후 진로 등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하여 이 자료가 방송대 간호인 발전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실시되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요구 등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입학, 등록, 연령 및 취업분포 등 기존 통계자료(학생현황)를 분석하였으며 입학동기, 교육매체보유, 강의만족도, 학습방법, 교과목, 졸업 논문 및 시험, 졸업후 진로 등은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대학 보건위생학과

- (1) 기존 통계자료는 연도별 학기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 (2)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교육서비스 요구 및 만족도, 졸업후 기대 등에 관하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3, 4학년 재학생 총 5000명중 20%인 1,000명을 무작위 표출방법에 의해 표출한 후 1996년 1월에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 기재가 완성되어 분석에 사용된 것은 320매(회수율 32%)로서 전체 재학생의 6.6%에 해당되는 것이었다(표 1 참조).
- (3) 분석은 SPS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로 포함시키지 않기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로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등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방송대 전체의 등록률이 45%에서 66%의 범위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간호학 전공학생의 등록율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1학기 등록 대비 2학기 등록율을 비교해 보면 92년도에 81.1%, 93년도에 87%, 93년도에 82.4%, 그리고 95년도에는 94.8%를 보여 80%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높은 등록율은 높은 학점취득율과 연관되는데 간호학전공학생의 학점취득율은 95년도 1학기 현재 90.4%로 방송대 전체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Ⅲ. 결과 및 논의

1. 학생현황분석

1) 등록 현황

재학생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개설 첫학기인 92년도에는 95.3%의 높은 등록율을 보였으며, 연도가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 학생이 누적되면서 적체되고, 당해년도 편입학생만을 통계치

2) 연령분포

재학생의 연령분포는 <표 2>에서와 같이 92년과 93년에는 25세 미만이 각각 48.5%와 46.3%로 가장 높았고, 94년과 95년에는 26-30세미만이 38.5%와 39.8%로 가장 높아 입학생의 연령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0대 연령층이 전체 학생의 2/3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6세이상 고령 입학생의 비율은 92년의 4.4%로부터 95년의 0.9%로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연도별, 학기별 등록율

학과	연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보건위생학과 (간호학전공)	등록대상자(명)	1,050	999	2,047	1,990	4,060	4,041	6,563	5,822
	등록생(명)	1,001	773	1,726	1,454	3,575	2,935	4,832	4,061
	등록비율(%)	95.3	77.3	84.3	73.1	88.1	72.6	73.6	69.8
	1학기대비 2학기 등록율	81.1		87.0		82.4		94.8	
방송대 전체	등록비율(%)	54.6	46.7	57.1	49.1	66.3	45.0	50.5	43.6
	1학기대비 2학기 등록율	88.5		86.0		67.9		86.3	

〈표 2〉 연도별 재학생 연령분포

연도	연령	21-25세	26-30세	31-35세	36-39세	40-45세	46세 이상	계
92		485 (48.5)	227 (22.7)	126 (12.6)	78 (7.8)	41 (4.1)	44 (4.4)	1001명 (100%)
93		800 (46.3)	385 (22.3)	168 (9.7)	230 (13.3)	88 (5.1)	55 (3.2)	1726명 (100%)
94		1009 (28.2)	1378 (38.5)	546 (15.3)	375 (10.5)	222 (6.2)	45 (1.3)	3575명 (100%)
95		1256 (25.9)	1925 (39.8)	696 (14.4)	591 (12.2)	321 (6.6)	43 (0.9)	4832명 (100%)

비고) 당해년도 1학기 등록생 대상

3) 취업현황

이용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학생의 취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생의 약 95%는 취업하고 있었다. 방송대 전체 취업율인 84.5%(95.1학기 등록통계자료 : 등록생 196,175명중 취업생 165,661명)와 비교해 볼 때 간호학 전공 학생의 취업

비중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중에서는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공무원 및 교원(주로 양호교사)이었다. 연도별로 볼 때 의료기관은 등록학생의 70%정도였고, 공무원은 11%, 교원은 10%정도였다(표 3).

〈표 3〉 연도별 학생취업현황

연도	직업	농, 상, 수산업	공무원	직업 군인	교원	회사원	의료 기관	기타	주부, 무직	계
93		7 (0.4)	191 (11.1)	8 (0.5)	181 (10.5)	11 (0.6)	1211 (70.2)	60 (3.5)	57 (3.3)	1726명 (100%)
94		11 (0.3)	401 (11.2)	18 (0.5)	345 (9.7)	23 (0.6)	2536 (70.9)	75 (2.1)	166 (4.6)	3575명 (100%)
95		9 (0.2)	515 (10.6)	18 (0.4)	441 (9.1)	37 (0.8)	3518 (72.8)	67 (1.4)	227 (4.7)	4832명 (100%)

비고) 당해년도 1학기 등록생 대상

4) 졸업생현황

연도별로 졸업생은 94년에 282명, 95년도에 459명이었으며, 96년도에는 804명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25.3%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여자가 99.7%였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56.6%였다. 연령별로는 26-30세가 40%로 가장 많았고,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97.5%였으며, 방송대 타학과 졸업이 2.2%였다. 본인의 월수입은 100-149만원이 52.2%로 가장 높았다(표 4 참조).

2. 조사자료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3학년이 54.7%였고,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실수	백분율
학년	3학년	175	54.7
	4학년	115	35.9
	기타(재수강자)	29	9.1
	무응답	1	0.3
지역	서울	81	25.3
	인천	22	6.9
	경기	30	9.4
	강원	24	7.5
	충북	11	3.4
	대전, 충남	27	8.4
	전북	14	4.4
	광주, 전남	21	6.6
	대구, 경북	40	12.5
	부산, 경남	42	13.1
제주	8	2.5	
성별	남	1	0.3
	녀	319	99.7
결혼상태	미혼	181	56.6
	기혼	139	43.4
연령	25세 이하	43	13.4
	26-30세	132	41.2
	31-35세	53	16.6
	36-40세	53	16.6
	41-45세	35	10.9
	46세 이상	4	1.3
최종학력	전문대졸	312	97.5
	대졸(방송대 타학과 포함)	7	2.2
	대학원졸	1	0.3
	50만원 미만	5	1.5
본인의 월수입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92	28.8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67	52.2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9	12.2
	200만원 이상	5	1.5
	무응답	12	3.8
	계	320	100.0

대상자의 취업현황을 보면〈표 5〉 병원이 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학교(16.9%)였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기타 공공기관 근무를 합하여 현황을 보면 간호학 전체 학생과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자의 직업 분포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직책은 평간호사가 45.3%로 가장 높았고, 양호교사가 15.6%, 수간호사가 14.1%를 나타냈다. 직장 근무년수는 10년 이상과 5년이상 10년미만이 각각 26.9% 및 26.3%를 나타내 50% 이상이 5년이상 직장근무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대상자들의 취업특성

항 목		실수	백분율
근무처	병원	197	61.6
	학교	54	16.9
	보건소	17	5.3
	보건진료소	7	2.2
	산업장	9	2.8
	국, 공립기관	5	1.6
	기타	8	2.5
	무직	23	7.1
직책	평간호사	145	45.3
	수간호사	45	14.1
	간호관리자(과장, 부장, 감독)	2	0.6
	양호교사	50	15.6
	산업장간호사	1	0.3
	보건진료원	11	3.4
	군인, 공무원	3	0.9
	기타	40	12.5
	비해당(무직)	23	7.3
	직장근무년수	1년미만	11
1년이상-3년미만		68	21.3
3년이상-5년미만		64	20.2
5년이상-10년미만		84	26.3
10년이상		86	26.9
해당없음	7	2.2	
계	320	100.0	

2) 입학관련 사항

입학동기와 목적에 관한 9개의 문항을 4단계로 평가하여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들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가 8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61.3%)”,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53.1%)” 순이었다(표 6-1). 같은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는 “집에 머

물면서 대학공부를 할 수 있어서”가 32.5%로 가장 많았고, 그의 “학비 부담이 적어서(24.7%)”, “나의 능력에 맞는 진도로 대학공부를 할 수 있어서(19.1%)”의 순이었다<표 6-2>. 이상으로 간호학전공 학생들은 대부분이 학비부담이 적고 집에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방송대의 특성보다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간호전문인으로 필요한 지식 함양과 보다 나은 미래설계를 위하여 방송대에 지원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에 따라 입학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한 결과,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표 6-3>와 “교육내용이 충실하다

고 생각하였기 때문에”<표 6-4>의 문항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결혼 상태에 따른 입학 동기의 차이 역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표 6-5>와 “교육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표 6-6>의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88.5%가 방송대에 입학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표 7>, 81.3%가 방송대 입학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표 8> 전반적으로 방송대에 입학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입학동기와 목적

응답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	무응답 (%)	계 (%)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268 (83.8)	41 (12.8)	1 (0.3)	5 (1.6)	5 (1.6)	320 (100.0)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196 (61.3)	95 (29.7)	17 (5.3)	6 (1.9)	6 (1.9)	320 (100.0)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170 (53.1)	89 (27.8)	34 (10.6)	20 (6.3)	7 (2.2)	320 (100.0)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32 (41.3)	107 (33.4)	51 (15.9)	23 (7.2)	7 (2.2)	320 (100.0)
집에 머물면서 대학공부를 할 수 있어서	71 (22.2)	79 (24.7)	56 (17.5)	104 (32.5)	10 (3.1)	320 (100.0)
학비부담이 적어서	65 (20.3)	91 (28.4)	72 (22.5)	79 (24.7)	13 (4.1)	320 (100.0)
나의 능력에 맞는 진도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37 (11.6)	96 (30.0)	115 (35.9)	61 (19.1)	11 (3.4)	320 (100.0)
교육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51 (15.9)	120 (37.5)	104 (32.5)	33 (10.3)	12 (3.8)	320 (100.0)
단조로운 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88 (27.5)	114 (35.6)	59 (18.4)	46 (14.4)	13 (4.1)	320 (100.0)

<표 6-1> “그렇다”로 답한 상위 3위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83.8 %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61.3 %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53.1 %

<표 6-2> “그렇다 않다”로 답한 상위 3위

집에 머물면서 대학공부를 할 수 있어서	32.5 %
학비부담이 적어서	24.7 %
나의 능력에 맞는 진도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19.1 %

〈표 6-3〉 입학동기와 연령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응답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그렇지 않다 (%)	계 (%)
25세 이하		5(11.6) (21.7)	7(16.3) (13.7)	8(18.6) (7.5)	23(53.5) (17.6)	43(100.0)
26-30세		9(6.9) (39.1)	30(23.1) (58.8)	40(30.8) (37.4)	51(39.2) (38.9)	130(100.0)
31-35세		3(5.9) (13.0)	2(3.9) (3.9)	24(47.1) (22.4)	22(43.1) (16.8)	51(100.0)
36-40세		4(8.0) (17.4)	8(16.0) (15.7)	22(44.0) (20.6)	16(32.0) (12.2)	50(100.0)
41세 이상		2(5.3) (8.7)	4(10.5) (7.8)	13(34.2) (12.1)	19(50.0) (14.5)	38(100.0)
계		23 (100.0)	51 (100.0)	107 (100.0)	131 (100.0)	312

$\chi^2=21.44$ $p=0.44$

〈표 6-4〉 입학동기와 연령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교육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연령	응답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그렇지 않다 (%)	계 (%)
25세 이하		5(11.6) (15.2)	17(39.5) (16.5)	18(41.9) (15.0)	3(7.0) (5.9)	43(100.0)
26-30세		16(12.4) (48.5)	43(33.3) (41.7)	58(45.0) (48.3)	12(9.3) (23.5)	129(100.0)
31-35세		3(6.0) (9.1)	18(36.0) (17.5)	19(38.0) (15.8)	10(20.0) (19.6)	50(100.0)
36-40세		8(16.7) (24.2)	14(29.2) (13.6)	16(33.3) (13.3)	10(20.8) (19.6)	48(100.0)
41세 이상		1(2.7) (3.0)	11(29.7) (10.7)	9(24.3) (7.5)	16(43.2) (31.4)	37(100.0)
계		33 (100.0)	103 (100.0)	120 (100.0)	51 (100.0)	307

$\chi^2=33.10$ $p=0.0009$

〈표 6-5〉 입학동기와 연령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응답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그렇지 않다 (%)	계 (%)
미 혼		13(7.2) (56.5)	31(17.2) (60.8)	48(26.7) (44.9)	88(48.9) (67.2)	180(100.0)
기 혼		10(7.6) (43.5)	20(15.2) (39.2)	59(44.7) (55.1)	43(32.6) (32.8)	132(100.0)
계		23(100.0)	51(100.0)	107(100.0)	37(100.0)	312

$\chi^2=12.25$ $p=0.0065$

〈표 6-6〉 입학동기와 연령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교육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결혼상태	응답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그렇지 않다 (%)	계 (%)
미 혼		23(12.9) (50.0)	26(14.6) (44.1)	70(39.3) (61.9)	59(33.1) (67.0)	178(100.0)
기 혼		23(18.0) (50.0)	33(25.8) (55.9)	43(33.6) (38.1)	29(22.7) (33.0)	128(100.0)
계		46(100.0)	59(100.0)	113(100.0)	88(100.0)	306

$\chi^2=9.59$ $p=0.0223$

〈표 7〉 방송대 입학에 대한 개인의 견해

응답	실수(명)	백분율(%)
매우 잘 했다	141	44.1
잘 했다	142	44.4
그저 그렇다	32	10.0
별로 잘 한 일이 아니다	3	0.9
무응답	2	0.6
계	320	100.0

〈표 8〉 방송대 입학 권유

응답	실수(명)	백분율(%)
아주 그렇다	92	28.8
그렇다	200	62.5
그렇지 않다	27	8.4
전혀 그렇지 않다	1	0.3
계	320	100.0

3) 교육매체 보유 및 이용현황

방송대 학생의 원격학습에 필수적인 교육매체 보유현황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96.3%가 개인학습전용 카세트라디오를 보유하고 있었고, 학습전용 TV나, VTR의 보유율도 44.1%, 49.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의 보유율은 31.3%로 다른 교육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Hitel 등 컴퓨터 통신망 가입율도 6.3%로 매우 낮았다(표 9).

교육매체의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라디오 방송강의를 50%이상 청취하는 학생은 18.2%, “전혀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33.1%인 반면(표 10), 녹음강의의 경우 50%이상 청취하

는 학생은 33.1%, “전혀 듣지 않는다”로 응답한 학생은 14.4%로 나타났다(표 11). 그리고 방송대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방송수업을 청취하는 일(38.8%)로 나타나므로써(표 12) 녹음강의와 라디오 방송강의 청취율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95년 2학기에 4학년 교과목으로 처음 방영되었던 TV강의 시청율도 51.7%가 ‘전혀 듣지 않는다’로 응답하였다(표 13). 따라서 TV방송강의나 라디오방송강의의 경우, 녹음, 녹화데이프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9〉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매체의 종류

응답	실수(명)	백분율(%)
개인학습전용 TV	141(44.1)	63.9
개인학습전용 카세트라디오	308(96.3)	91.6
TV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VTR	158(49.4)	73.2
개인용 컴퓨터(PC)	100(31.3)	46.3
컴퓨터통신망 가입(Hitel)	20(6.3)	15.9

〈표 10〉 라디오 방송강의 청취율

응답	실수(명)	백분율(%)
80% 이상	29(9.1)	3.8
50-80% 정도	29(9.1)	9.2
20-50% 정도	58(18.1)	19.4
20% 이하	96(30.0)	27.8
전혀 듣지 않는다	106(33.1)	39.8
무응답	2(0.6)	
계	320(100.0)	100.0

〈표 11〉 녹음강의 청취율

응답	실수(%)	백분율(%)
80% 이상	55	17.2
50-80% 정도	51	15.9
20-50% 정도	78	24.4
20% 이하	87	27.2
전혀 듣지 않는다	106	14.4
무응답	2	0.9
계	320	100.0

〈표 12〉 방송대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응답	실수(%)	백분율(%)
방송수업을 청취하는 일	124	38.8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일	26	8.1
자학자습에서 오는 고독감	33	10.3
진도에 맞춰 공부하여 시험에 임하는 일	121	37.8
대학생으로 긍지를 갖고 생활하는 일	13	4.1
무응답	3	0.9
계	320	100.0

4) 강의방식에 대한 만족도
라디오, TV 등을 포함한 각 교육매체를 통한

〈표 13〉 TV 방송강의 시청율

응답	실수(%)	백분율(%)
80% 이상	17	9.3
50-80% 정도	14	7.7
20-50% 정도	23	12.6
20% 이하	34	18.7
전혀 듣지 않는다	94	51.7
계	182	100.0

강의방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는 “출석수업”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만족”과 “다소만족”을 합계한 긍정적 응답율도 “출석수업”이 8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지상강좌”가 75%였다. 같은 문항에 대하여 “매우 불만”으로 응답한 경우는 “녹음강의”가 12.8%, “라디오 방송강의”가 10.9%이었다(표 14). 따라서 출석수업의 활성화와 학습에 유용한 지상강좌 제작을 위한 노력과 함께, 라디오 방송강의 및 녹음강의의 만족도 신장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효과를 높이기위해 새로 도입하고자하는 교육방식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는 화상강의의 필요성이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케이블 TV(64.1%), CD ROM 프로그램 개발

〈표 14〉 각 매체를 이용한 강의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응답	매우만족 (%)	다소만족 (%)	다소불만 (%)	매우불만 (%)	모르겠음 (%)	무응답 (%)	계 (%)
라디오 방송강의	9 (2.8)	112 (35.0)	127 (39.7)	35 (10.9)	31 (9.7)	6 (1.9)	320 (100.0)
TV방송강의 내용 및 수준	15 (4.7)	105 (32.8)	55 (17.2)	6 (1.9)	116 (36.3)	23 (7.2)	320 (100.0)
녹음강의 내용 및 수준	12 (3.8)	112 (35.0)	131 (40.9)	41 (12.8)	16 (5.0)	8 (2.5)	320 (100.0)
지상강좌	34 (10.6)	206 (64.4)	53 (16.6)	7 (2.2)	15 (4.7)	5 (1.6)	320 (100.0)
출석수업	121 (37.8)	139 (43.4)	41 (12.8)	10 (3.1)	4 (1.3)	5 (1.6)	320 (100.0)
하이텔 보충강의의 내용 및 수준	5 (1.6)	50 (15.6)	25 (7.8)	2 (0.6)	207 (64.7)	31 (9.7)	320 (100.0)

〈표 15〉 새로 도입하는 교육방식에 대한 요구도

응답	매우필요 (%)	다소필요 (%)	다소불필요 (%)	매우불필요 (%)	모르겠음 (%)	무응답 (%)	계 (%)
화상강의	129 (40.3)	118 (36.9)	3 (0.9)	4 (1.3)	46 (14.4)	20 (6.3)	320 (100.0)
Tutor제도	52 (16.3)	100 (31.3)	7 (2.2)	4 (1.3)	127 (39.7)	30 (9.4)	320 (100.0)
케이블 TV	77 (24.1)	128 (40.0)	25 (7.8)	5 (1.6)	65 (20.3)	20 (6.3)	320 (100.0)
CD ROM 개발	75 (23.4)	120 (37.5)	14 (4.4)	1 (0.3)	87 (27.2)	23 (7.2)	320 (100.0)

〈표 15-1〉 학년에 따른 새로 도입하는 교육방식에 요구도 차이(T검정)

강의	학년	3학년	4학년	T	P-value
화상강의		3.46±.57	3.49±.63	-.45	.655
TUTOR 제도		3.24±.62	3.20±.61	.32	.753
케이블 TV		3.15±.67	3.19±.81	-.42	.673
CD ROM 개발		3.18±.59	3.34±.62	-1.81	.072

(60.9%) 순이었다〈표 15〉. 새로 도입하고자하는 교육방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 문항마다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미루어 이들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 문항에 대한 학년별 요구도의 차이검정 결과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6〉. 따라서 과목별 특

〈표 16〉 학습태도

응답	실수(%)	백분율(%)
매일 계획을 세워서 학습한다	13	4.1
시간이 나는대로 간헐적으로 학습한다	119	37.2
시험준비 위주로 학습한다	156	48.8
거의 학습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30	9.4
무응답	2	0.6
계	320	100.0

〈표 16-1〉 학습태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연령	학습태도	매일 계획을 세워서 학습한다 (%)	시간이 나는대로 간헐적으로 학습한다(%)	시험준비 위주로 학습한다 (%)	거의 학습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	계 (%)
25세 이하			17(39.5) (14.3)	24(55.5) (15.0)	2(4.7) (5.9)	43(100.0)
26-30세		4(3.1) (30.8)	33(25.4) (27.7)	79(60.8) (51.0)	14(10.8) (46.7)	130(100.0)
31-35세		1(1.9) (7.7)	27(50.9) (22.7)	23(43.4) (14.8)	2(3.8) (6.7)	53(100.0)
36-40세		5(9.4) (38.5)	24(45.3) (20.2)	16(30.2) (10.3)	8(15.1) (26.7)	53(100.0)
41세 이상		3(7.9) (23.1)	18(47.4) (15.1)	13(34.2) (8.4)	4(10.5) (13.3)	38(100.0)
계		13(100.0)	119(100.0)	155(100.0)	30(100.0)	317

$\chi^2=35.79$ $p=0.0003$

성에 맞는 화상강의, 케이블 TV 등의 교육방식을 도입하므로써 학습효과와 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학습태도 및 학습방법

학습태도에 관한 문항에서 48.8%가 “시험준비 위주로 학습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일 계획을 세워서 학습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1%에 불과하였다<표 16>. 한편 학습태도의 연령 및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카이제곱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16-1, 표 16-2>. 학생자신이 평가한 현재의 학습태도는 5.9%가 “매우 열심히 한다”, 41.6%가 “대체로 열심히 한다”에 응답한 반면, “거의 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경우는 11.9%이었다(표 17). 또한 현재 학습태도의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7-1>. 즉 기혼자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현재의 학습태도

응답	실수(명)	백분율(%)
매우 열심히 한다	19	5.9
대체로 열심히 한다	133	41.6
별로 하지 않는다	129	40.3
거의 하지 않는다	38	11.9
무응답	1	0.3
계	320	100.0

<표 16-2> 학습태도의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결혼상태	학습태도 매일 계획을 세워서 학습한다 (%)	시간이 나는대로 간헐적으로 학습한다(%)	시험준비 위주로 학습한다 (%)	거의 학습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	계 (%)
미혼	4(2.2) (30.8)	60(33.3) (50.4)	97(53.9) (62.6)	19(10.6) (63.3)	180(100.0)
기혼	9(6.6) (69.2)	59(43.1) (49.6)	58(42.3) (37.4)	11(8.0) (36.7)	137(100.0)
계	13(100.0)	119(100.0)	155(100.0)	30(100.0)	317

$\chi^2=8.19$ $p=0.421$

<표 17-1> 결혼상태에 따른 현재 학습태도의 차이(카이제곱검정)

결혼상태	학습태도 매우 열심히 한다	대체로 열심히 한다	별로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계 (%)
미혼	7(3.9) (36.8)	68(37.8) (51.1)	76(42.2) (58.9)	29(16.1) (78.4)	180(100.0)
기혼	12(8.7) (63.2)	65(47.1) (48.9)	53(38.4) (41.1)	8(5.8) (21.6)	138(100.0)
계	19(100.0)	133(100.0)	129(100.0)	37(100.0)	318

$\chi^2=12.06$ $p=0.007$

또 서점이나 학습자료 대행기관에 가입한 경우는 방송대 전체 학생이 14.7%인데 비해 본 연구의 응답자는 8.1%였으며<표 18>,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나 학습자료를 이용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38.4%로 높게 나타났다<표

19>. 또한 스타디 그룹에 가입한 학생도 방송대 전체의 경우 41.1%인데 비해 15% 밖에 되지 않아<표 20>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교재와 교육매체에 의존하여 자습형태로 학업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서점이나 학습자료 대행기관에 가입여부

응답	실수(명)	백분율(%)
예	26	8.1
아니오	294	91.9
계	320	100.0

〈표 19〉 서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학습 자료의 이용경험

응답	실수(명)	백분율(%)
전혀 없다	123	38.4
한 학기에 한두번 있다.	165	51.6
자주 있다.	31	9.7
무응답	1	0.3
계	320	100.0

6) 적정 수강과목 수에 대한 견해
 대부분의 학생들 (91%)이 생각하는 적정 수강 과목 수는 한 학기에 4과목 내지는 6과목인 것으로

〈표 20〉 스타디 그룹 가입여부

응답	실수(명)	백분율(%)
예	48	15.0
아니오	271	84.7
무응답	1	0.3
계	320	100.0

〈표 21〉 학기당 적당한 수강과목 수

응답	실수(명)	백분율(%)
2 과목	1	0.3
3 과목	18	5.6
4 과목	127	39.7
5 과목	73	22.8
6 과목	90	28.1
8 과목	1	0.3
무응답	10	3.1
계	320	100.0

〈표 22〉 출석수업제도에 대한 학생의 견해

문항	응답 (%)	아주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렇게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무응답 (%)	계 (%)
방송통신대의 특성상 매체를 통한 교육이외의 것은 필요하지 않다.	7 (2.2)	32 (10.0)	130 (40.6)	146 (45.6)	5 (1.6)	320 (100.0)	
출석수업실시장소가 원거리여서 수강에 어려움이 크다.	65 (20.3)	114 (35.6)	87 (27.2)	50 (15.6)	4 (1.3)	320 (100.0)	
시간을 내어 참석하기가 어렵다.	46 (14.4)	167 (52.2)	73 (22.8)	31 (9.7)	3 (0.9)	320 (100.0)	
유일한 면대면 교육의 기회로서 의미가 크다.	224 (70.0)	74 (23.1)	14 (4.4)	5 (1.6)	3 (0.9)	320 (100.0)	
학우들과 소속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다.	157 (49.1)	105 (32.8)	44 (13.8)	11 (3.4)	3 (0.9)	320 (100.0)	
평소 궁금하던 사항을 교수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이다.	121 (37.8)	147 (45.9)	39 (12.2)	10 (3.1)	3 (0.9)	320 (100.0)	
한 강의실에서 수강학생수가 너무 많다	165 (51.6)	119 (37.2)	28 (8.8)	4 (1.3)	4 (0.9)	320 (100.0)	
강의후 시험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	73 (22.8)	148 (46.3)	79 (24.7)	16 (5.0)	4 (0.9)	320 (100.0)	
강사진에 대해 만족한다.	76 (23.8)	176 (55.0)	55 (17.2)	8 (2.5)	5 (1.6)	320 (100.0)	
실습과목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	25 (7.8)	130 (40.6)	113 (35.3)	31 (9.7)	21 (6.6)	320 (100.0)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약 40%의 학생들은 4과목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며, 23%가 5과목, 28%는 6과목 정도가 적절하다고 대답하였으며, 2과목 내지는 3과목이 적당하다고 답한 학생도 6%나 되었다. 7과목이상이라고 답한 학생도 1명(0.3%)이었다<표 21>.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1학기에 6과목씩 수강하도록 되어있는 현 시스템이 직장과 병행하는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임을 알 수 있다.

7) 출석수업제도에 대한 견해

출석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10가지 문항에 대해 4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항목에 대한 결과, 학생들은 출석수업을 “유일한 면대면 교육의 기회로서 의미가 크다”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88%의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 수강학생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평소 궁금하던 사항을 교수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학우들과 소속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22-1>. 한편 45%학생들이 “실습과목에 대해 만족한다”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답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실습과목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22-2>.

<표 22-1> “아주 그렇다”로 답한 것 중 상위 3위

유일한 면대면 교육의 기회로서 의미가 크다.	70.0%
한 강의실에서 수강학생수가 너무 많다.	51.6%
학우들과 소속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다.	49.1%

<표 22-2>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한 것 중 상위 3위

방송통신대의 특성상 매체를 통한 교육이외의 것은 필요하지 않다.	45.6%
출석수업 실시장소가 원거리여서 수강에 어려움이 크다.	15.6%
시간을 내어 참석하기가 어렵다.	9.7%
실습과목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	9.7%

8. 학습방법의 효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공부방법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① 스터디 그룹 ② 보조자료 (학습지, 지상강좌, 하이텔) ③ 보충학습 (학생회주관 특강) ④ 교과서 ⑤ 방송 및 카세트 청취 ⑥ 외부참고서 등의 각 공부방법이 학점을 취득하는 데 효과가 있는 정도를 4단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2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과서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한 학생이 92.2%(매우 효과

<표 23> 학습방법의 효과정도

응답	매우 효과적 (%)	효과적 (%)	효과적 아니다 (%)	전혀 효과없다 (%)	무응답 (%)	계 (%)
스터디그룹	54 (16.9)	159 (49.7)	44 (13.8)	19 (5.9)	44 (13.8)	320 (100.0)
보조자료 (학습지, 지상강좌, 하이텔)	33 (10.3)	223 (69.7)	40 (12.5)	3 (0.9)	21 (6.6)	320 (100.0)
보충학습 (학생회주관 특강)	16 (5.0)	120 (37.5)	77 (24.1)	30 (9.4)	77 (24.1)	320 (100.0)
교과서	109 (34.1)	186 (58.1)	19 (5.9)	1 (0.3)	5 (1.6)	320 (100.0)
방송 및 카세트 청취	67 (20.9)	150 (46.9)	82 (25.6)	8 (2.5)	13 (4.1)	320 (100.0)
외부참고서	38 (11.9)	161 (50.3)	76 (23.8)	24 (7.5)	21 (6.6)	320 (100.0)

적 : 34.1%, 효과적 : 5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습지, 지상강좌, 하이텔 등의 보조자료(80%), 방송 및 카세트 청취(67.8%), 스터디 그룹(66.6%)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험이 교과서와 보충자료를 중심으로 한 강의에서 주로 출제되므로 당연한 결과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스

터디 그룹에 대한 결과는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물어 본 것이 아니므로 스터디 그룹 자체의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 점이 있다. 스터디 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당연히 효과를 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연령에 따른 학습방법의 효과 정도 차이를 카이제

<표 23-1> 학습방법의 효과정도의 연령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방송 및 카세트 청취”

연령	응답	매우 효과적 (%)	효과적 (%)	효과적이지 않다 (%)	전혀 효과없다 (%)	계 (%)
25세 이하			14(33.1) (17.1)	23(54.8) (15.4)	5(11.9) (7.5)	42(100.0)
26-30세		7(5.6) (87.5)	37(29.8) (45.1)	59(47.6) (39.6)	21(16.9) (14.1)	124(100.0)
31-35세			16(30.2) (19.5)	23(43.4) (15.4)	14(26.4) (20.9)	53(100.0)
36-40세		1(2.0) (12.5)	11(22.4) (13.4)	21(42.9) (14.1)	16(32.7) (23.9)	49(100.0)
41세 이상			4(10.5) (4.9)	23(60.5) (15.4)	11(28.9) (16.4)	38(100.0)
계		8(100.0)	82(100.0)	149(100.0)	67(100.0)	306

$\chi^2=22.67$ $p=0.0307$

<표 23-2> 학습방법의 효과정도의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교과서”

연령	응답	매우 효과적 (%)	효과적 (%)	효과적이지 않다 (%)	전혀 효과없다 (%)	계 (%)
미 혼		1(.6) (100.0)	14(7.9) (73.7)	115(65.0) (61.8)	47(26.6) (43.5)	177(100.0)
기 혼			5(3.6) (26.3)	71(51.2) (38.2)	61(44.5) (56.5)	137(100.0)
계		1(100.0)	19(100.0)	186(100.0)	108(100.0)	314

$\chi^2=12.59$ $p=0.0056$

<표 23-3> 학습방법의 효과정도의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외부참고서”

결혼상태	교과서	매우 효과적 (%)	효과적 (%)	효과적이지 않다 (%)	전혀 효과없다 (%)	계 (%)
미혼		11(6.5) (45.8)	33(19.6) (43.4)	103(61.3) (64.4)	21(12.5) (55.3)	168(100.0)
기혼		13(10.0) (54.2)	43(33.1) (56.6)	57(43.8) (35.6)	17(13.1) (44.7)	130(100.0)
계		24(100.0)	76(100.0)	160(100.0)	38(100.0)	298

$\chi^2=10.45$ $p=0.0151$

또한 각 학습방법별로 학년간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정을 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지역학습관 이용목적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학습관 이용 목적은 출석수업참여가 7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참고자료 이용 (14.7%), 자학자습 (6.6%), 스터디 그룹 활동 참여 (1.6%) 순이었다.

〈표 24〉 지역학습관 이용 목적

응답	실수(%)	백분율(%)
출석수업 참여	244	76.3
스터디 그룹 활동 참여	5	1.6
동아리 활동 참여	1	0.3
학생회 주최 행사 참여	1	0.3
참고자료 이용	47	14.7
자학자습	21	6.6
무응답	1	0.3
계	320	100.0

10. 휴학 또는 미등록 등에 관한 사항

방송대 재학중 휴학 또는 미등록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20.3%였는데〈표 25〉, 이들 중 58.4%가 1회 휴학 또는 미등록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25-1〉. 휴학 또는 미등록의 이유는 “직장 또는 가정일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나〈표 25-2〉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이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따른 휴학 미등록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25-3〉.

〈표 25〉 휴학 또는 미등록 경험

응답	실수(%)	백분율(%)
있다	65	20.3
없다	251	78.4
무응답	4	1.3
계	320	100.0

〈표 25-1〉 휴학 또는 미등록 횟수

응답	실수(%)	백분율(%)
1회	38	58.4
2회	13	20.0
3회	4	6.2
4회	3	4.6
5회 이상	7	10.8
계	65	100.0

〈표 25-2〉 휴학 또는 미등록 이유

응답	실수(%)	백분율(%)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	3.1
직장 또는 가정일 때문에	46	70.8
학점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2	3.1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6	9.2
공부내용이 너무 어려워 따라가기 힘들어	1	1.5
기 타	8	12.3
계	65	100.0

〈표 25-3〉 휴학 또는 미등록 경험의 학년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휴학, 미등록 경험	3학년 (%)	4학년 (%)	제수강 (%)	계 (%)
있 다	35(53.9) (20.1)	19(29.2) (16.7)	11(16.9) (40.7)	65(100.0)
없 다	139(55.6) (79.9)	95(38.0) (83.3)	16(6.4) (59.3)	250(100.0)
계	174(100.0)	114(100.0)	27(100.0)	315

11. 졸업 및 진로에 관한 사항

졸업에 관한 문항에서 88.1%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송대 졸업은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므로써 학생들의 졸업에 대한 요구와 의지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표 26>. 또 방송대학 졸업이 주는 이익에 관한 10개의 문항을 4단계로 평가하여 <표 2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들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은 “대학원 진학”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 17.5%,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증가” 10.9%로 나타났다<표 27, 표 27-1>. 같은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봉급인상”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승진” 38.4%, “취직이나 전직” 29.

7%이었다<표 27-2, 27-3>.

<표 26> 졸업에 대한 의견

응답	실수(%)	백분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송대 졸업을 할 것이다.	282	88.1
다른 어려움(직장, 가정문제 등)이 있으면 졸업을 못하게 될 것이다.	17	5.3
가능하다면 일반대학으로 옮기고 싶다.	13	4.1
배우는 일 자체에 가치를 두어서 졸업은 중요하지 않다.	7	2.2
무응답	1	0.3
계	320	100.0

<표 27> 방송대학 졸업이 주는 이익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무응답 (%)	계 (%)
승진		3(0.9)	61(19.1)	108(33.8)	123(38.4)	25(7.8)	320(100.0)
봉급인상		7(2.2)	38(11.9)	97(30.3)	156(48.8)	22(6.9)	320(100.0)
업무능력향상		33(10.3)	189(59.1)	57(17.8)	20(6.3)	21(6.6)	320(100.0)
취직이나 전직		11(3.4)	66(20.6)	125(39.1)	95(29.7)	23(7.2)	320(100.0)
대학원진학		122(38.1)	136(42.5)	29(9.1)	11(3.4)	22(6.9)	320(100.0)
인간관계의 확대		12(3.8)	136(42.5)	117(36.6)	35(10.9)	20(6.3)	320(100.0)
상사나 동료의 긍정적 평가		31(9.7)	187(58.4)	63(19.7)	20(6.3)	19(5.9)	320(100.0)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		56(17.5)	175(54.7)	57(17.8)	12(3.8)	20(6.3)	320(100.0)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증가		35(10.9)	157(49.1)	90(28.1)	18(5.6)	20(6.3)	320(100.0)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27(8.4)	146(45.6)	94(29.4)	30(9.4)	23(7.2)	320(100.0)

<표 27-1> “매우 그렇다”로 답한 것 중 상위 3위

대학원 진학	38.1%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	17.5%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증가	10.9%

<표 27-2>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한 것 중 상위 3위

봉급 인상	48.8%
승진	38.4%
취직이나 전직	29.7%

졸업후 진로에 관한 문항에서도 64.4%가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28>, 대부분 간호학이나 보건학 계열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표 28-1>. 응답자중 방송대 졸업후 직장을 학교로 옮겨 양호교사가 되길 희망하는 경우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표 28-2>, 취직하고 싶은 직장 역시 학교가 가장 많아 방송대 졸업후에도 간호학 전공의 장점을 살려 관련분야에서 전문직업인으로 활약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표 28-3>.

〈표 28〉 졸업후 진로

문항	응답	예	아니오	무응답	계
현재의 직장을 옮기고 싶다.		59(18.4)	207(64.7)	54(16.9)	320(100.0)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207(64.7)	77(24.1)	36(11.3)	320(100.0)
일반대학에 편, 입학하고 싶다.		21(6.6)	228(71.3)	71(22.2)	320(100.0)
방송대 다른학과에 편입하고 싶다.		39(12.2)	208(65.0)	73(22.8)	320(100.0)
취직하고 싶다.		13(4.1)	211(65.9)	96(30.0)	320(100.0)

〈표 28-1〉 졸업후 진로의 연령에 대한 차이
(카이제곱검정)
“현재의 직장을 옮기고 싶다”

연령	응답	그렇다 (%)	아니다 (%)	계 (%)
25세 이하		15(42.9) (25.4)	20(57.1) (9.7)	35(100.0)
26-30세		26(24.3) (44.1)	81(75.7) (39.1)	107(100.0)
31-35세		12(26.1) (20.3)	34(73.9) (16.4)	46(100.0)
36-40세		5(11.9) (8.5)	37(88.1) (17.9)	42(100.0)
41세 이상		1(2.8) (1.7)	35(97.2) (16.9)	36(100.0)
계		59(100.0)	207(100.0)	266

$\chi^2=19.77$ $p=0.0006$

〈표 28-2〉 졸업후 진로의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
(카이제곱검정)
“현재의 직장을 옮기고 싶다”

직장변경	그렇다 (%)	아니다 (%)	계 (%)
결혼상태			
미혼	48(31.6) (81.4)	104(68.4) (50.2)	152(100.0)
기혼	11(9.6) (18.6)	103(90.4) (49.8)	114(100.0)
계	59(100.0)	207(100.0)	266

$\chi^2=19.77$ $p=0.0006$

〈표 28-3〉 졸업후 진로의 현재 직장에 따른 차이(카이제곱검정)
“현재의 직장을 옮기고 싶다”

직장	직장변경	그렇다 (%)	아니다 (%)	계 (%)
병원		45(26.6) (83.3)	124(73.4) (61.4)	169(100.0)
학교		2(4.3) (3.7)	45(95.4) (22.3)	47(100.0)
공공기관		7(20.6) (13.0)	27(79.4) (13.4)	34(100.0)
기타			6(100.0) (3.0)	6(100.0)
계		54(100.0)	202(100.0)	256

$\chi^2=12.72$ $p=0.0053$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방송대학교 간호학전공 학생들의 입학동기와 목적, 원격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습방법, 졸업 후 진로 등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전공 3, 4학년(재수강자 포함)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출한 1000명 중에서 조사에 응한 320명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학과에서 만든 구조화된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회수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회수된 설문지 외에 기존 통계자료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서술통계, 카이제곱검정, T-test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방송대 보건위생학과(간호학전공)의 입학동기와 목적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83.8%)”, “직업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61.3%)”,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53.1%)” 등이었다. 한편 입학동기와 목적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카이제곱검정한 결과,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와 “교육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의 문항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같은 문항에 대한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 역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와 “교육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의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2) 교육매체 보유현황은 개인학습전용 카세트라디오(96.3%), TV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VTR(49.4%), 개인학습전용 TV(44.1%), 개인용 컴퓨터(31.3%), Hitel 등을 포함한 컴퓨터통신망 가입(6.3%)이었다.
- 3) 라디오 방송강의 청취율은 “80%이상” 9.1%, “50-80%정도” 9.1%, “20-50%정도” 18.1%, “20%이하” 30.0%, “전혀 듣지않는다” 33.1%이었으며, 녹음강의 청취율은 “80%이상” 17.2%, “50-80%정도” 15.9%, “20-50%정도” 24.4%, “20%이하” 27.2%, “전혀 듣지않는다” 14.4%이었다.
- 4) 방송대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방송수업을 청취하는 일”(38.8%), “진도에 맞춰 공부하여 시험에 임하는 일”(37.8%), “자학자습에서 오는 고독감”(10.3%),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일(8.1%)” 등이었다.
- 5) 각 매체를 이용한 강의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는 “출석수업”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을 합계한 긍정적인 응답율도 “출석수업”이 “8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지상강좌”가 75%였다. 같은 문항에 대하여 “매우 불만”으로 응답한 경우는 “녹음강의”가 12.8%, “라디오 방송강의”가 10.9%이었다.
- 6)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방식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는 “화상강의”의 필요성이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케이블TV”(64.1%), “CD ROM 프로그램 개발”(60.9%) 순이었다.
- 7) 학습태도에 관한 문항에서 48.8%가 “시험위주로 학습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일 계획을 세워서 학습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1%이었다. 또한 학습태도의 연령 및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를 카이제곱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학생 자신이 평가한 현재의 학습태도는 “매우 열심히 한다” 5.9%, “대체로 열심히 한다” 41.6%, “별로 하지 않는다” 40.3%, “거의 하지 않는다” 9% 등이었다. 현재 학습태도의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8)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방법 중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응답은 교과서가 9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습지, 지상강좌, 하이텔 등의 보조자료(80.0%), 방송 및 카세트 청취(67.8%), 스터디 그룹(66.7%) 순이었다.
- 9) 지역학습관 이용목적은 출석수업참여가 7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참고자료이용(14.7%), 자학자습(6.6%), 스터디그룹 활동참여(1.6%) 순이었다.
- 10) 방송대 재학 중 휴학 또는 미등록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20.3%이며, 이들 중 58.4%가 1회 휴학 또는 미등록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 또는 미등록의 이유는 “직장 또는 가정일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11) 졸업에 관한 문항에서 88.1%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송대 졸업은 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 12) 방송대학 졸업이 주는 이익에 관한 10개의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은 “대학원 진학이” 38.1%,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 17.5%,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 증가” 10.9%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봉급인상” 48.8%, “승진” 38.4%, “취직이나 전직” 29.7% 순이었다.

13) 졸업후 진로에 관한 문항에서 64.4%가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후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응답한 대상자중 70%와 새로 취직을 원하는 대상자들 모두 학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졸업후 진로와 연령 및 결혼상태와의 관계유무를 카이제곱검정한 결과, “현재의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문항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현재의 직장에 따른 졸업후 진로의 차이도 역시 “현재의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문항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종합적으로

1. 간호학전공학생의 입학동기는 방송대적 특성보다는 학사학위취득 등 전문인으로서의 지식 함양에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입학권 유도 높고, 높은 등록을 및 학점취득율을 나타내 방송대생활의 전반적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방송대 생활의 어려움은 강의청취, 학습의 진도조절등 자학자습에서 오는 어려움 등이었으며, 각 매체를 이용한 강의방식 중 출석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원격학습방법에 대한 적응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강의방식인 영상강의의 필요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습은 대체로 열심히 하는 편이었으나, 시험위주의 공부 가 많아 좀 더 단편적이지 않은 학문탐구의 자세가 요구된다.
이로부터 방송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학습에 있어 우리 대학 특성이 고려된 학습방법의 수용력을 키울 수 있는 각종 홍보 및 전략활용이 요구된다.
2. 일반선택과목에 비해 전공과목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 교재의 적합성 등의 만족도는 높았으며, 평가에 있어서도 비교적 공정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체로 간호학전공 개설과목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고 도전적인 과목보다는 학점 관리가 용이한 과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간호학탐구 및 대학원진학을 위한 기초과정으로서 다져지기 위해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인 학습태도로 임할 것이 요구된다.

3. 졸업에 대한 의지는 높았으며, 졸업으로 인한 대학원진학,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 등 내적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봉급인상이나 승진 등 외적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해 방송대 졸업자에 대한 학계 및 간호계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과 지원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한국방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4학년도 신, 편입생 실태조사.” 한국방송대학교. 1994. 7

한국방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4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한국방송대학교 1995. 2

한국방송대학교. “95학년도 제1학기 등록통계.” 한국방송대학교. 1995. 4

한국방송대학교. “수업통계연보. 통권 제3호”. 한국방송대학교. 1994.

한국방송대학교. “수업통계편람.” 한국방송대학교 교무처. 1992

한국방송대학교. “통계연보” 한국방송대학교. 1995.

한국방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방송대 학생의 미등록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대학교. 1994. 4

한국방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방송대학 졸업생 면담 자료”. 한국방송대학교 1995. 2

한국방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방송대학 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위한 문항개발” 1994.

— Abstract —

A Study on Education Need and Satisfaction of the KNOU Nursing Students

*Lee, Sun Ock · Kim, Young Im · Lee, Sang Me**

This survey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the degree of educational need of the KNOU(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nursing students defined as admission purposes, satisfaction of distance learning education, learning methods, and courses after graduation.

Among randomly assigned 1000 students, 320 KNOU nursing students who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t-test.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admission purposes of the KNOU nursing students were “in order to get a bachelor’s degree(83.8%)”, “to acquire knowledge for task(61.3%)”, or “to be admitted for the graduate school(53.1%)” etc.. Comparing the admission purposes by age, tow items—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myself” and “excellent curriculu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se two items were also found to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2. For the media maintenance,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use their own cassett radios(96.3%), VTR(49.4%), TV only for the study(44.1%), personal computer(3.31%), or joining Hitel(6.3%).
3. Listening rates of the radio lecture were “over 80%(9.1%)”, “50–80%(9.1%)”, “20–50%(18.1%)”, “below 20%(30%)” and “never(33.1%)”, And record lecture showed listening rates as follows : “over 80%(17.2%)”, “50–80%(15.9%)”, “20–50%(24.4%)”, “below 20%(27,2%)” and “never(14.4%)”.
4. The difficulties with KNOU life were “listening radio lectures(38.8%)”, studying by following teaching schedules(37.8%)”, “isolated self-study(10.3%)”, and “appearance in the attending classes(8.1%)”.
5. As for satisfaction with teaching methods, the data showed that 81.2% of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or very satisfied) with “attending classes” and 75%, with “paper lectures”. On the other hand some of respondents were very dissatisfied with “recorded lecture(12.8%)” and “radio lecture(10.9%)”
6.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students want to have “video conferencing lecture(77.2%)”, “cable TV(64.1%)” and “CD ROM program” to improve learning effects.
7. Concerning learning attitudes, 48.8% of the students reported “study mainly for examination”, and only 4.1% answered “study every day with plan”. The learning attitud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and age. The students also evaluated themselves as “study very hard(5.9%)”, “study hard in general(41.6%)”, “study a little(40.3%)”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 and “study little(11.9%)”.
8. The students responded the most effective learning material was the “textbook (92.2%)”.
 9. For the purposes of using the local center, the results showed “for the attending classes(76.3%)”, “for the use of references(14.7%)”, and “for the study group(66.7%)”.
 10. The results revealed that 20.3% of the respondents had ever experienced unregistration or temporary withdrawal, and 53.4% among them did not register more than one time. The most common reason for the unregistration was “due to family affairs or their job(70.8%)”.
 11. 88.1%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will graduate without fail”.
 12. Regarding the benefits from the KNOU graduation, respondents indicated “graduate school admission(38.1%)”, “self-confidence in social life(17.5%)”, and understanding social problems(10.9%)”.
 13. 64.4% of the students showed that they have intention to enter the graduate school. The item “changing work pla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and age.